

문학동네 신간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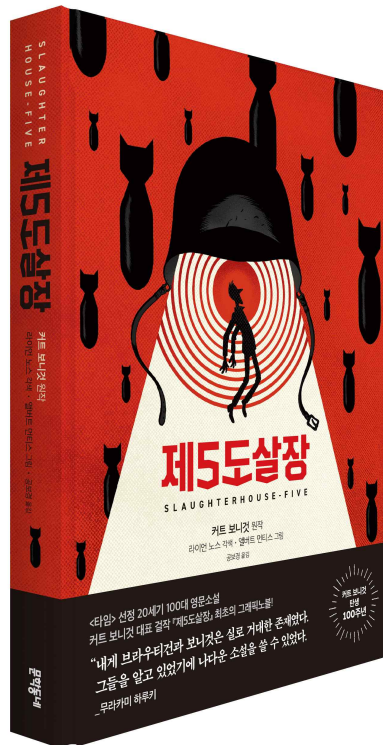
제5도살장: 그래픽노블

Slaughterhouse-five

커트 보니것 원작

라이언 노스 각색 | 앨버트 먼티스 그림

공보경 옮김



**“내게 브라우티건과 보니것은 실로 거대한 존재였다.
그들을 알고 있었기에 나다운 소설을 쓸 수 있었다.”**

— 무라카미 하루키(소설가)

〈타임〉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소설

커트 보니것 대표 걸작 『제5도살장』 최초의 그래픽노블!

#미국소설 #커트보니것 #탄생100주년 #제5도살장 #그래픽노블 #과학소설
#시간여행 #전쟁소설 #명작만화 #풍자소설

들어보라: 빌리 필그림은—

—킬고어 트라우트의 소설을 읽었고

—드레스덴 공습을 겪었으며

—트랄파마도어 행성에 다녀왔고

—커트 보니것을 만났고

—시간에 갇혔다.

20세기 고전이자 독보적인 반전反戰 소설 『제5도살장』

★ <타임>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소설’

★ 미국대학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모던라이브러리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학’

★ <뉴스위크> 선정 ‘역대 최고의 명저 100’

웃음과 유머로 절망에 맞선 작가, 하루키가 존경하고 박찬욱이 사랑한 작가 커트 보니것의 대표 장편 『제5도살장』의 그래픽노블이 커트 보니것 탄생 100주년을 맞아 문학동네에서 출간된다. 보니것이 스스로 A+를 매긴 대표작이자 그를 미국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반전反戰 작가로 자리매김시킨 작품 『제5도살장』은 명실상부 20세기 고전으로 손꼽힌다.

『제5도살장: 그래픽노블』은 ‘만화계의 아카데미상’ 아이너스상을 두 차례 수상한 만화가이자 기획자 라이언 노스가 각색하고 스페인의 저명한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앨버트 먼티스가 그림을 그렸다. “정신분열증적” 방식으로 서술된 『제5도살장』을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인 이 그래픽노블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문학작품의 압도적으로 눈부신 시각적 번역작” “보니것이 처음인 독자도, 보니것의 골수팬도 모두 만족할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들어보라, 빌리 필그림은 시간에서 풀려났다!

케이프코드의 안락한 환경에서 살았던(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던) 독일계 미국인 4세. 오래전 미군 보병 경찰대원으로 전쟁포로가 됐던 그는 ‘엘베강의 피렌체’라 불리는 독일 드레스덴에서의 폭격을 목격했고, 살아남아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됐다. 그는 자식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대학살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것은 비행접시를 보낸 트랄파마도어 행성의 이야기들을 약간의 전보 형식에 정신분열증적 방식으로 다룬 소설을 각색한 작품이다. _본문 15쪽

주인공 빌리 필그림은 제2차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전선에서 낙오해 독일군 포로가 된다. 독일 드레스덴에서 가축 도살장으로 쓰이던 ‘제5도살장’에 갇히게 되는데, 무기도 없고 제대로 된 군복도 갖춰 입지 못하고 충분히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종전을 불과 몇 달 앞둔 1945년의 어느 날, 미영 연합군의 폭격으로 드레스덴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다. 13만 명의 시민들이 몰살당했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빌리 필그림은 시간에서 풀려났다! 그의 시간여행은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었고, 그는 자신의 죽음을, 그다음엔 탄생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책에 쏟아진 찬사

20세기 가장 중요한 문학작품의 압도적으로 눈부신 시각적 번역작. 보니것의 작품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기이한 즐거움을 느꼈다. _케빈 파워스(소설가)

노스와 몬테이는 문학작품을 각색한 그래픽노블 중 최고의.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작품을 창조해냈다. _라이브러리 저널

보니것이 처음인 독자도, 보니것의 골수팬도 모두 만족할 작품. _마거릿 벤틀(만화가)

내게 브라우티건과 보니것은 실로 거대한 존재였다. 그들을 알고 있었기에 나다운 소설을 쓸 수 있었다. _무라카미 하루키(소설가)

너무나 특별하다. 보니것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둘러싼 풍경의 지도를 만들고, 우리가 잘 아는 장소에 이름을 붙여준 작가다. _도리스 레싱(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보니것은 확고한 자신만의 문체를 지닌 경이적인 작가다. 그에게, 우리 시대의 마크 트웨인에게 경의를 표한다. _노먼 메일러(폴리처상 수상 작가)

그 누구도 보니것과 같을 수는 없다. 그는 단 한 번도 지루했던 적이 없다. _고어 비달(소설가)

보니것은 가장 강력하고 탄탄한 상상력의 소유자이다. 그 누구도 보니것이 될 수 없다. _존 어빙(소설가)

책 속에서

나는 현재에 대해 자문했다. 그것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내 것은 얼마만큼인지. _본문 5쪽

커트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들을 위하여. 풀려난 자들을 위하여. _본문 9쪽

드레스덴 참사, 대단히 비싸고 꼼꼼히 계획된 그것은 너무도 무의미했다. 마침내 이 지구상의 단 한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이 책을 썼고, 이 책은 내게 많은 돈과 명예를 가져 주었다. 뭐, 그런 거지. 어쨌거나 나는 죽은 사람 한 명당 2달러 혹은 3달러를 번 셈이다. 나도 그 일에 발을 담고 있다. _본문 11쪽

이 모든 일은 커트에게 대부분 실제로 일어났다. _본문 13쪽

메리, 명예를 걸고 맹세할게요. 내 책에서 존 웨인이 말을 역은 없을 겁니다. 사실, 책 제목을 ‘소년 십자군’이라 붙일 예정이에요. _본문 13쪽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어떤 것도 아프지 않았다. _본문 16쪽

들어보라. 빌리 필그림은 시간에서 풀려났다. _본문 16쪽

지 지배배뻬? _본문 16쪽

빌리는 어느 시간으로 흘러갈지 통제할 수 없다. 다음에 인생의 어떤 부분이 펼쳐질지 알 수 없기에 그는 늘 두 려워한다. _본문 18쪽

1967년 트랄파마도어인들은 빌리에게 처음으로 시간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알려준다. 모든 순간은 동시에 존 재한다. 트랄파마도어인들은 뻗어나간 산맥을 보듯 시간의 각 순간들을 한번에 볼 수 있다. 그들에게 빌리 필그림 의 인생은 이런 식으로 보인다. _본문 19쪽

트랄파마도어인은 주검을 봐도 그저 죽은 사람이 그 순간에 나쁜 상태에 처해 있다고, 다른 많은 순간에는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사람을 봐도 어깨를 으쓱하면서 '뭐, 그런 거지'라고 말한다. _본문 20쪽

하느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 수 있는 차분한 마음과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언제나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빌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었다. _ 본문 44쪽

나는 트랄파마도어인이고, 당신이 쪽 뻗어나간 로키산맥을 한눈에 보듯 모든 시간을 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시간 이죠. 변하지 않아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런 거니까요. 시간을 한 순간씩 떼어놓고 보면, 아까 내가 말했듯 이, 우리 모두가 호박 속에 갇힌 벌레인 걸 알게 될 겁니다, _본문 75쪽

나는 우주의 유인 행성 서른한 곳을 방문했고, 행성에 관한 백 개 이상의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필그림 씨. 그 중 지구에서만 '자유의지'에 대해 얘기합니다. _본문 75쪽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그의 연줄이 변변찮은지 확인해라!' _본문 94쪽

아시겠지만 나는 시간이 존재한 이래로 무분별한 학살을 이어온 행성 출신입니다. 내 동포가 급수탑에서 산 채로 끓여 죽인 여학생들의 시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동포들은 자기네가 순수한 악과 싸우고 있다며 자랑스러워 했죠. 지구인들은 우주에서 무시무시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_본문 100쪽

끔찍한 시간은 무시하고 좋은 시간에 집중하라. _본문 102쪽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계세요, 안녕하세요. _본문 119쪽

"사람들은 놀랍고 새로운 거짓말을 수없이 생각해낼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더이상 살고 싶어지지 않을 테니까." _본문 191쪽

뒤돌아보지 말라고들 한다. 물론 나도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_본문 195쪽

원작 **커트 보니것** Kurt Vonnegut

1922년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독일계 미국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코넬대학교 에 진학하며 아버지처럼 건축을 공부하거나 인류학을 전공하고 싶어했으나, 집안의 반대로 생화학을 택한 후 전공 공부보다는 대학 신문 〈코넬 데일리 선〉에서 글을 쓰는 데 더 열 중했다.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평화주의를 옹호하는 신문 기고로 인해 징계를 받자 대 학을 그만두고 군에 입대한다. 1944년 전선에서 낙오해 드레스덴 포로수용소에서 지내게 된 보니것은 1945년 미영 연합군의 폭격으로 13만 명의 드레스덴 시민들이 몰살당하는 비극적 사건 한가운데 서게 된다. 그 체험은 이후 그의 문학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쟁이 끝나 고 미국으로 송환된 후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에 입학했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었기 에 학위를 포기하고 생업에 뛰어들었다. 소방수, 영어교사, 자동차 영업사원 등의 일을 병 행하며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콜리어스〉 〈아거시〉 같은 잡지에 단편소설을 정기

적으로 기고했다. 『자동 피아노』(1952)로 장편 데뷔 후 『고양이 요람』(1963) 『제5도살장』(1969) 등을 세상에 선보이며 미국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반전反戰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다 『타임퀘이크』(1997)를 마지막으로 소설가로서 은퇴를 선언했으며, 2007년 맨해튼 자택에서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고 몇 주 후 사망했다.

블랙유머의 대가 마크 트웨인의 계승자로 평가받으며 리처드 브라우티건, 무라카미 하루키, 더글러스 애덤스 등 많은 작가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밖의 대표작으로 『타이탄의 세이렌』 『마더 나이트』 『신의 축복이 있기를, 로즈워터 씨』 『나라 없는 사람』 『그래, 이 맛에 사는 거지』 등이 있다.

각색 **라이언 노스** Ryan North

캐나다의 만화 작가이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1980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스구드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2003년부터 인터넷에 자신의 대표작 ‘공룡 만화 Dinosaur Comics’를 연재했다. ‘어드벤처 타임Adventure Time’ 시리즈와 ‘천하무적 다람쥐 소녀The Unbeatable Squirrel Girl’ 시리즈로 ‘만화계의 아카데미상’으로 알려진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

그린이 **앨버트 먼티스** Albert Monteys

스페인의 만화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197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만화 <슈퍼 마리오>에 빠져 지냈다. 바르셀로나대학교에서 순수예술을 공부했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풍자 주간지 <화요일El Jueves>을 총괄했다. 2014년 풍자 월간지 <자부심과 만족Orgullo y Satisfacción>을 창간하고 SF 만화를 펴내기 시작했다. 대표작인 SF 앤솔러지 시리즈 ‘우주!Universe!’로 아이스너상 후보에 올랐다.

옮긴이 **공보경**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사악한 것이 온다』 『아크라 문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메이즈 러너』 『테메레르』 『양들의 침묵』 등이 있다.

- 제목 제5도살장: 그래픽노블 (Slaughterhouse-five)
- 원작 커트 보니것 (Kurt Vonnegut)
- 각색 라이언 노스 (Ryan North)
- 그림 앨버트 먼티스 (Albert Monteys)
- 역자 공보경
- 분야 만화, 미국소설
- 판형 172×242, 각양장
- 쪽수 200쪽
- 가격 22,000원
- 발행일 2022년 10월 24일
- ISBN 978-89-546-8898-7 07840